

DJ 서거
10주기



정치권
추모

“민주주의·평화·경제·복지·IT...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일제히 'DJ 정신'을 기렸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의 글에서 “국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다짐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일군 민주주의 발전·한반도 평화 정착·한일관계 개선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납니다”며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박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그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기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라는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함께 잘 사는 길에 용기있게 나설 수 있었다”고 했다. 최근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

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1990년 13일 목숨을 건 단식으로 다시 열었던 지방자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면서 ““복지는 인권이다”라는 신념으로 이뤄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건강보험의 통합은 ‘전국민 정생애 건강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로 시작한 IT강국 대한민국은 또 한번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열린 국립서울현충원에 총집결했다. 정치권에서는 문화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대거 자리했다. 문 의장은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이번주 출범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주중 마무리 짓고 회사를 출범시킨다. 신설 합작법인은 TF 성격의 조직을 꾸려 광주 빛그린산단 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 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얻은 후 연내 자동차공장 착공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14면〉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르면 오는 21일 합작법인 발기인 총회를 연다. 출자 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발기인들이 참여하는 총회에서 대표이사과 법인 명칭을 확정 짓고 법인설립등기를

끝으로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한다.

광주시와 현대차, 광주은행 등 출자자는 모두 34개 기관(기업 및 단체 등)으로, 지난 6월 협약식에 참여한 투자자의향 기관의 수와 같지만, 면면은 다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자들이 마련할 자기자본금은 총 2300억원으로 이날 현재 2~3개 기관 외에는 모두 출자금 입금에 완료한 상태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나머지 자금 3454억원의 재무적 투자자로 산업은행과 기타 금융권에서 조달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019청소년축제’ 기와 열정의 무대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서 열린 ‘2019 광주·전남 청소년축제’에서 댄스 경연에 참가한 KJN퍼포먼스팀이 깜찍한 율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에서 한지예양과 ‘양주’ 댄스팀이 각각 교육부장관상을 차지했다.

▶관련기사·화보 7·9·2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 경제효과·도시브랜드 두 토끼 잡았다

수영 선수권·마스터즈 대회 한 달 간 대장정 마무리

화합과 친목, 감동의 환희가 물결쳤던 지구촌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2019 광주 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가 1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18일 대대원의 막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각각 국가대표들이 참가해 ‘금빛 레이스’를 펼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이번 마스터즈대회까지 한 달여 간 빛고를 광주에서 펼쳐진 전 세계 수영인들의 축제에 성공적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3면〉

이처럼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광주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적지 않은 경제적인 효과 등을 거뒀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 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84개국에서 수영 동호회원 등 60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마스터즈대회는 참가비와 경기 등록비, 숙박비 등을 참가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특성상 고정수익만 17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의 맛과 멋, 흥이 가득한 다양한 문화와 관광을 체험하는 관광상품 등에 내외국인들이 몰리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2일부터 치러진 선수권대회도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국의 선수단 2537명과 코치와 임원 1621명, 미디어진 1365명, 국제수영연맹(FINA) 관계자 583명, 후원사 274명, 각각 연맹 298명이 등록하는 등 총 6678명이 광주를 찾았다.

지난 2012년 옛 광주발전연구원이 추산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로는 전국 2조4000억원, 광주 1조4000억원이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전국 1조원, 광주 6500억원이다.

고용창출 효과도 전국적으로 2만4000여명으로,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에서 취업유발효과는 1만8000여명으로 내다봤다.

국제도시로서의 광주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회기간 전 세계 39억명이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하면서 언론을 통해 광주가 노출됨에 따라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영은 전 세계 생활스포츠 1위인데다 유럽과 미 대륙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하고 있어 대회 시청률 또한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국제 스포츠 대회를 또 한번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전 세계에 글로벌도시 광주 이미지를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과 광주의 미래지향적인 정체성 정립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향상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두 번의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효율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의 모범도시로의 위상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달 간의 수영대회를 치러내면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대회를 이끈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자신감 확산과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하는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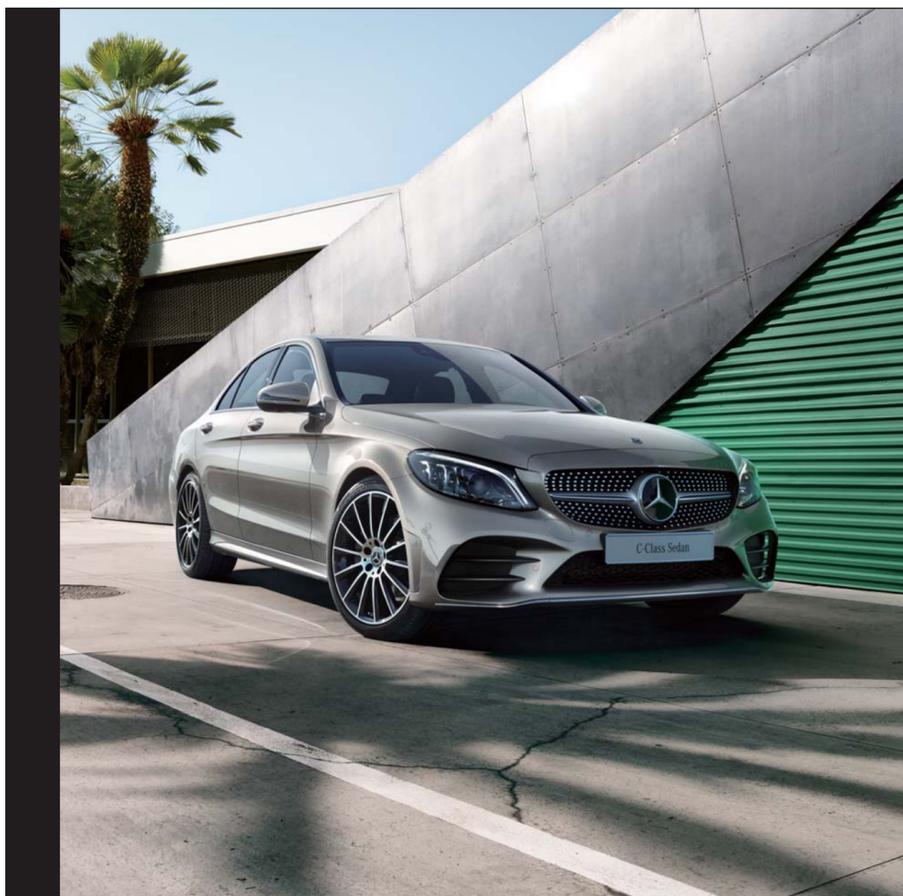
이밖에 국제 무대에서 상대적으 미흡한 한국 수영의 경기력 향상과 수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통해 경기력 향상 계기를 만드는 효

과도 가져왔다.

조직위 관계자는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가 열린 한달 간 많은 선수와 임원, 응원단 등을 포함해 광주를 찾은 내외국인들이 많았고, 이들의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훌륭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특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광주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를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폐회식은 1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공식행사와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고, 오는 2021년 후쿠오카 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ver stop improving.
The New C-Class Sedan.

메르세데스-벤츠의 새로운 C-Class.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C 220 d (배기량: 1,995cc, 공차 중량: 1,650kg, 자동9단), 복합연비: 14.4km/ℓ(도시연비: 13.2km/ℓ, 고속도로연비: 16.3km/ℓ),
등급: 2등급, 복합CO₂배출량: 131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